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탄력'

전북대에 해상풍력국제공동연구소 설립키로… 28개 기관·기업 참여해 계약학과 개설 협력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역량이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전북대가 국내 해상풍력기술 연구의 중심으로 거듭난다.

전북대 해양발전플랜트연구소가 중심이 돼 27개 기관과 기업이 뜻을 모아 전북대 내에 '해상풍력국제공동연구소'를 설립키로 한 것이다.

전북대가 25일 대학 내 진수당에서 28개 기관 및 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연구소 설립 및 대학 내 '해상풍력계약학과'를 개설하는 데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이를 위해 전북대학교는 25일 대학 내 진수당에서 28개 기관 및 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연구소 설립 및 대학 내 '해상풍력계약학과'를 개설하는 데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약식(MOU)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소 설립에는 전북대를 비롯해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 한국해양대학교, 제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전주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선급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유니슨(주), 대림C&S(주), 현대글로벌(주), EnBW(독), TERRAWATT(독), JBO(독), SOWP-SPC(주), JY중공업(주), 탱크테크(주), GIGAS ENG.(주), DCG(주)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상풍력국제공동연구소는 60억 원을 들여 전북대 캠퍼스 부지에 4층 규모로 2020년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전북대는 2020년에 해상풍력계약학과를 설립해 2028년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연구소 부지 제공 및 운영과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전반을 맡는다. 또한 해양발전플랜트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총괄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참여기관 및 기업들을 지원하고, 새만금 국가종합실증단지에 관련 센터를 구축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새만금개발청 등 정부기관은 참여기관과 기업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발굴 및 해상풍력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새만금종합실증단지 내 부지를 제공한다.

지자체는 연구소 운영비 등의 보조금 지원과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R&D 유치 및 기반 구축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계약학과를 통한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협력하고, 연구고 설립 및 기반구축 관련 인·허가도 지원키로 했다.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은 "신재생에너지 활용 역량이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중요한 시기에 해상풍력기술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외 선도기관들이 모여 포괄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설립될 해상풍력기술 국제공동연구소가 지역과 국가 에너지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부모 리더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전북도교육청이 2019 학부모 리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5일부터 27일까지 삼성생명 전주연수소에서 열리는 이번 학부모 리더 교육은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부모가 학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학부모 역량 강화를 통해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 회장 340여 명이 참석한다. 첫날은 전주·완주·진안·무주·장수, 둘째날은 군산·김제·남원·임실·순창, 마지막날은 익산·정읍·고창·부안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학부모회 활동 의미와 역할에 대한 특강과 상반기 권역별 학부모협의회 결과 공유 △학교구성원과 학부모가 직접 이야기하는 학부모회 활동 △MBTI 성격유형 검사 등이다.

특히 자녀교육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MBTI 검사를 통해 자녀와 소통 공감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옥희 장학관은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권역별 학부모협의회,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등 다양한 학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학부모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여름철 복장 간소화 지침 안내

전북도교육청은 업무능률 향상과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지침을 마련, 각급학교와 기관에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안내된 '공무원 복장 관련 지침'에서는 품위유지,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적극 권장했다.

상의는 노타이 정장·콤비·니트·남방·칼라셔츠 등을, 하의는 정장바지·면바지 등의 착용을 안내했다.

또 넥타이는 계절에 관계없이 착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식회의 또는 행사 참석, 국(내)외 손님 접견, 기타 의전상 넥타이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착용하도록 했다.

다만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은 제한했다. 특히 슬리퍼,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화려한 복장으로 민원인 등에게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 복장 간소화는 간부급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전 직원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이 지난 24일 인문대학에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공간인 'HATCH 라운지'를 개관했다.

취·창업 교육 원스톱 플랫폼 운영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전주대, HATCH 라운지 개관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주송)은 지난 24일 인문대학에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공간인 'HATCH 라운지'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HATCH 라운지'는 산학협력 확산을 위래 마련된 '개방형 4IR 교육체험' 공간으로 스타센터 도서관을 시작으로 공과대학, 의과학대학, 문화융합대학에 이어 인문대학에도 구축됐다.

진리관(인문대학) 1층에 구축된 HATCH 라운지의 콘셉트는 '인문학과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존'이다. 산학협력을 인문학 분야로 확산하고 학생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실험, 흥미, 힐링 등 다양한 공간을 구성했다.

인문대학 HATCH 라운지는 기존에 구성된 HATCH 스테이션과 LINC+실습 공간 등과 통합·운용돼 학생들이 창의 학습, 아이디어 도출 및 설계, 모델 제작, 기획·마케팅 등의 활동을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송 단장은 "산학교육혁신 브랜드를 'HATCH'로 정립함으로써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LINC+사업단은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LINC+사업 2단계 평가에서 호남·제주권 최우수 등급을 획득 했으며, 도내에서 유일하게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 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타스 이희성 대표가 24일 전북대를 찾아 김동원 총장과 신재생에너지산업 산학관 커플링사업단, 학과 교수 등을 접견하고 공식 기증식을 가졌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전북대, 타스로부터 모션제어 교육장비 기증 받아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IT융합 모션제어 교육훈련 장비를 개발하는 전북 연고기업인 타스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학생 교육훈련 장비를 기증받았다고 전했다.

타스 이희성 대표는 24일 전북대를 찾아 김동원 총장과 신재생에너지산업 산학관 커플링사업단, 학과 교수 등을 접견하고 공식 기증식을 가졌다.

타스가 전북대에 기증한 교육훈련 장비는 IT융합 모션제어 장비 등 2종이다.

이 시스템은 산업 현장에서 이용되는 모션제어에 대한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제어 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 이론 및 실습을 할 수 있는 장치다.

이 시스템은 산업 현장 운용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을 간접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현장 실무기술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이 장비를 기계 및 항공우주 분야의 계측공학 및 실험 수업에 학생 실험실습용으로 활용하고, 모션제어를 이용한 물리량 계측 실험 연구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희성 대표는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으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이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대학인 전북대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가 가진 장비를 기증키로 했다"며, "전북대 학생들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성장해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